

제목 : 레위기 4. 소제 - 향기로운 냄새

본문 : 레위기 2장 1~3, 11~13절 / 참고 - 레위기 6:14~23 / 참고 레위기 22:1~16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1.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란 피흘림이 있는 제물(가축)을 사용하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릴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만이 아니라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사를 드릴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소제가 비둘기조차 드리기 어려웠던 가난한 이들이 드릴수 있었던 제사였다고 말합니다.

#. 번제와 마찬가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성경의 기록 역시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민하”(מִנְחָה)는 기본적으로 드리진 선물이나 속국이 종주국에서 바치는 공물(조공)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에는 동물 제사나 곡식 제사 모두를 포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창 4:3 삼상 2:17, 창 32장, 왕상 4:21). 하지만 소제와 관련된 규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자는 곡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했습니까? 이때 소제의 예물에는 어떤 것들이 첨가될 수 있었습니까? 특히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런 첨가물들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관련된 용례들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제에 첨가된 것들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2) 반면 소제에 결코 들어가는 안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차피 다 불로 태워서 드릴 것이라면서 왜 이런 것들은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지침들을 통하여 레위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는 회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는 일상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소제는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질 수 있었습니다. 2장 4절부터 소개되는 규정에 따르면 소제의 예물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드리질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는 모두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소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제와 관련된 규례들을 표현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다른 곳과는 달리 2인칭 주어문장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느끼게 합니다.

## 향기로운 냄새 - 기념물은 태워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들은 남게 되고..

2.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함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의 헌신 또한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백성들을 위한 지침과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들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살펴야 하는 소제의 지침은 레위기 6장 14~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겨진 성물을 먹는 규례는 레위기 2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에 있어서 소제와 관련되어서 주의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 피없이 드러졌던 소제의 예물은 하나님이 드러지는 **제물의 종류보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동기와 마음의 자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소제의 예물처럼 **곡식으로 드릴수 있었던 또다른 제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속죄와 관련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흘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원칙까지 무색하게 하는 제사가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제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할까요?

- 1)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소제로 드러진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소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불로써 태워드리는 화제였으니 분명 제단위에서 불살라야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제단 위에서 드러지는 소제의 예물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2) 남은 것 없이 모든 제물을 전부 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소제의 예물은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제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예물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했습니까?** 특히 그 거룩한 성물을 다루어야 하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3) 누룩이나 꿀은 모든 소제물에 들어가서는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룩이나 꿀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하지만 그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 4)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 특히 **기름부음을 받은 날에 드러야하는 소제에 대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이때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할까요?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 관계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계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